

# 급조된 미분양 대책... 효과는 “글썩요”

## 금융·세제 완화도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지역업체 “투자심리 위축...해결 역부족”

정부가 광주·전남 등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세 감면 등의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광주·전남의 미분양 규모가 사상 최대치에 달할 만큼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이번 대책이 내년 6월까지로 한시적이라는 점 등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세제·금융 완화=정부가 한나라당은 11일 당정 협의를 열고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내년 6월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는 기존 분양가의 2%에서 1%로 낮아진다. 또 일시적 1가구2주택의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미분양주택 구입 후 기존

주택을 2년내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를 10%이상 낮춘 주택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이 10% 상향조정된다. 이 경우 금융권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 대책 왜 또 나왔나=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현재의 미분양 사태를 방지할 경우 국가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사상 최대 규모인 13만1천757가구에 달한다. 또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4월 현재 미분양에 묶인 자금이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등 주택시장의 불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미분양주택이 1만2천396가구에 달하면서 지역 경제 회복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4천462가구)의 3배 수준으로 지역에서 아파트가 건설된 이후 가장 많은 미분양이 쌓여있다.

▷미분양 대책 효과 ‘반신반의’=건설업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지방 주택정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환영하면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시장의 침체의 골이

워낙 깊은 데다 이번 대책이 내년 6월까지로 한시적이라는 점 등에서 전반적인 미분양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광주는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최근 주택 판매제한 완화 등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되레 늘어날 만큼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또 세율 인하의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의 경우 현재도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율이 토지(4.6%)보다 낮은 데다 수요자들 대부분이 거래비용보다는 시세차익 여부에 따라 주택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공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은 “현재의 지방시장 침체 정도를 감안했을 때 이번 조치는 한계가 있다”며 “미분양주택 매입자에 대해선 거래세를 면제하고, 1가구2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창업보육센터 우수기업 아이디어展

### 중기청·광주디자인센터·현대백화점 광주점 공동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과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봉규)·현대백화점 광주점(점장 황해연)이 11~15일 현대백화점 광주점 정문에서 ‘광주·전남 창업보육센터 우수기업 아이디어 상품展’을 갖는다. <사진>

이번 상품展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중기제품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11일 개막식에는 황해연 점장을 비롯해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홍금우 광주·전남창업교육센터협의회장, 이봉규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상품展 참여업체는 광주·전남 지역 25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테라이엔씨(콜라겐 플루이드, 비타민 플루이드)를 비롯해 보미 천연화장품(천연한방미용팩, 천연화장품, 아토피·여드름 비누), 바이오프락트(프로폴리스스킨), 한국BI 사업협동조합(치솔살균기), 조스라인(스케이트보드), 만나커뮤니케이션(오디원액, 오디팩, 뽕잎차), 빈백스코리아(비타민강화 청국장류), 에스바이오푸드(JOYVIN산수유, 복분자, 미인 다이어트), 펄스영농조합법인(농산물 관련 가공식품) 등이 포함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시, 수도권 LED 업체 14곳과 MOU

(발광다이오드)

### 市 “신규 고용창출... 자동차·광산업 경쟁력 강화”

광주시는 11일 수도권 소재 LED(발광다이오드) 조립업체인 (주)LED 에비뉴를 비롯한 14개 기업과 1천300억 상당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광주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공영산업(주)과 (주)에메이징어치브 등 LED·전자관련 생산 수도권 업체 6개사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인 정도정밀, 대정화학 등 자동차 부

품업체 4개사, 세신전자 등 삼성광주 전자 협력업체 3개사, 경향공기 제작 전문기업인 한양항공 등 모두 14개사다.

광주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1천10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광산업·자동차·디지털 가전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광대 광주시장은 협약식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안한 투자환경 속에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시의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243개 기업으로부터 6천577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5천35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52개 기업으로부터 1천33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지역 아파트 하반기 물량 작년보다 절반 가량 감소

### 7,724가구 공급 예정

올 하반기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광주·전남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7천72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만5천446가구)에 비해 50.0% 감소한 것으로, 미분양 적체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1년새 주택공급량이 ‘반토막’ 났다.

전국도 올 하반기 분양물량이 22만

4천114가구에 그쳐 지난해 하반기(32만2천762가구)에 비해 31.8%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2천306가구)과 경기(6만9천100가구) 등 수도권에서 총 8만9천712가구가 공급된다. 인천은 하반기 분양물량이 8천306가구로, 1년 전보다 60.4%(1만2천645가구)나 줄었다.

이와 관련, 올 하반기 전국의 주택 공급물량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8천6천729가구로 파악됐다. 이는 민간택지 내 분양물량의 49.0% 수준으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업체의 공급회피 현상이 뚜렷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청소년 직장체험

### 광주·전남경총 18일까지 접수

광주·전남경총(회장 임홍섭)은 노동부 위탁사업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해 진로탐색과 경력형성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을 고취시켜 진로설계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기간은 6월 하순부터 8월 하순

까지로, 연수시간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연수지역은 광주와 광주인근 전남지역으로, 여수·목포권은 제외된다.

연수생은 15~29세의 미취업 청소년(휴·재학생 포함)이며, 연수 실시기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한다.

연수생과 연수기관 신청기한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경총성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홈페이지(www.gjef.or.kr)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문의(062) 654-3426.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두바이에서 ‘모하비 시승회’

### 기아차, 중동 등지 기자단·대리점 초청

기아자동차는 9~13일 중동과 아프리카지역 자동차 기자단과 대리점 관계자 등 90여명을 초청, 두바이에서 ‘모하비 시승회(사진)’를 개최했다.

다음달 중동지역 모하비 런칭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시승회에는 사우디아라비아·UAE·알제리 등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주요 자동차 기자들이 참석, 모하비에 대한 현지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시승회를 계기로 정통 SUV 모하비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아차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모하비 신차발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중동지역 유력 TV, 신문 등에 모하비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는 한편, 현지 주요고객들을 대상으로 모하



비 시승행사를 마련하는 등 모하비 우수성 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 하기 휴가철 및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 기간에도 모하비 경험증정 이벤트 등으로 모하비 홍보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아차는 모하비 런칭에 이어 올해 말에는 로체 이노베이션(수출명·올티마)을 선보이는 등 올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14만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中企 창업 4년이 고비’

### 손익분기점 달성, 성장 단계 진입 시점

### 코딩, 13만여곳 조사

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안정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하려면 평균 4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보증기금(코딩)은 11일 국내 중소기업 13만5천여곳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처음으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거나 매출이 15% 이상 증가하는 성장 단계에 들어서려면 업종 및 규모별로 3년 10개월~ 4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이 3년 10개월로 가장 짧았고 농림어업 및 광

업이 4년2개월로 가장 오랜 시일이 걸렸다. 자산 규모별로는 10억 원 미만인 영세기업이 3년11개월, 10억~ 70억원인 업체가 3년 10개월, 70억원 이상인 업체가 4년3개월이 각각 소요됐다. 또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미보증업체에 비해 약 8개월 빨리 성장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중 코딩경제연구소장은 “창업 중소기업이 성장 단계에 도달하는 4~5년간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세종투어**  
062) 222-2209

세종투어 여행사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문로 111-1111  
문의: 062-222-2209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알차고 특별한 6월 여행

강력추천

**SEJONG TOUR**  
TRAVEL AGENCY

**HAPPY SUNDAY~제주TOUR!!**

1박2일 제주여행

₩139,000 (매)

**부산여행**

대천항공 무료 대박은

₩599,000 (매)

**대천항공 무료 대박은**

₩369,000

₩379,000

₩389,000

**제주관광도 TOUR!!**

1박2일 제주여행

₩179,000 (매)